

“모든 국민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정의로운 통합정부·유연한 실용정부
민생회복 ‘비상경제TF’ 곧바로 가동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 규명”

이재명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은 4일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3·4·5·6·13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취임사를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 기회로 만들겠다”며 “군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실용주의 외교 기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부각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문화산업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철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역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해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돼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또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궐위선거의 경우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김진수 기자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 지명

국정원장 이종석·비서실장 강훈식

장흥 출신 위성락 안보실장 발탁

보성 출신 황인권 경호처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사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발표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김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지명자는 서울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새천년민주당 김대중총재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경기 출신인 이 지명자는 참여정부 시절 제20대 통일부 장관

을 지낸 남북문제 전문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부 고위급 인사도 발표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충남 출신 3선 국회의원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발탁했다. 안보실장에는 장흥 출신인 위성락 의원(비례)을 임명했다. 위 의원은 익산 남성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외무부 동국과장, 주미 참서관, 북미국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역임했다. 경호처장은 보성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를 졸업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을 선임했다. 육군 3사관학교를 2기로 졸업한 비육사 출신이다. 대변인에는 서울 출신의 강유정 민주당 의원(비례)이 임명됐다. /김진수 기자

※현충일대체휴무...6일자 신문 쉽니다



시민들 향해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을 마친 뒤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아이들의 꿈도
청년들의 기회도
우리들의 미래도

다 함께 커가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삼성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함께 가요
새로운 미래로!